

지역 매아리

부안군, 공무직 · 청경 · 미화원 힐링&CS회복과정 위탁교육

부안군은 지난 3~4일 2일간 공무직, 청경,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힐링&CS회복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비례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성장가능한 에너지를 충전해 군정에 반영코자 추진됐다.

교육은 회복탄력성으로 열정 회복하기, 마음을 디자인 하라!, CS공감퀴즈쇼와 함께하는 화합의 밤, CS실천강령만들기 등으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에 지친 맘을 회복하고 친절서비스를 익혀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안군군 관계자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및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구성원간 공감대 형성 및 사기진전을 통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친절문화 구축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수성동 샘골터널 옆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 안전 확보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주민 안전이 염려됐던 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돼 이와 같은 염려를 덜게 됐다.

시는 최근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수성동 샘골터널 옆 기존 골목도로를 확장,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소방도로는 샘골로와 정읍제일고등학교 후문 구간의 연장 46m 구간으로, 기존 도로 폭을 6m에서 8m로 넓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공, 당초 올해 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구간인 정읍제일고등학교와 보상과 담장 복구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가 중지됐다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사를 재개해 지난 달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일대는 도로 폭이 좁아 마을 안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주택 밀집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민원의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소방도로 개설로 일대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정읍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후에도 취약지역 중심의 소방도로 개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섬 주민 건강지킴이 효과 특특

부안 위도면 공중보건의사, 닥터헬기 · 해경정으로 응급환자 이송해 생명보호 기여

부안군 섬 지역인 위도에 유일한 의료기관인 위도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내과 2명, 치과 1명, 한의사 1명)이 섬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내과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명은 진료를 위한 열악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한 해소를 위해 자신들의 피곤함을 잊은 채 언제든지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대기 진료에 임하고 있다.

내과 공중보건의들의 24시간 상시대기 덕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섬에 병원이 없다 보니 큰 부상을 당하거나 보건소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오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해 닥터헬기나 해경정을 통해 육지로 응급이송을 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현재까지 닥터헬기나 해경정으로 약 40여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해 그들의 소중한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내과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지역주민들에게 치과 진료 및 유·청



부안 위도면 닥터헬기 이송장면.

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처치를 실시해 구강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의과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근육통 및 관절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의과를 찾는 지역주민에게 한방진료 및 침, 뜸, 부항 치료로 지역주민들의 관절 건강 예방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공중보건의들이 있어 지역주민들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4명의 공중보건의사에게도 위도에서의 생활은 의사로 생활할 때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박현자 부안군 보건소장은 "앞으로 도서지역 및 의료취약지역의 주민건강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공중보건의사가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민들의 희망과 나눔의 빛이 되길'

'고창 사랑의 빛' 야간 경관조명 점등... 내년 2월 중순까지

고창군 청사 앞이 환한 조명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다. 고창군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과 꿈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하기 위해 내년 2월 중순까지 군 청사 주변 야간 경관조명을 점등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경관조명은 청사 앞 회전교차로와 청사 광장에 한반도 지구본, 나눔과 봉사 공유하기, 추억 만들기 등 3가지 테마로 경관조명을 조성했다.

특히,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지구본은 고창군이 모든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고창을 형상화했으며 '나눔과 봉사는 군민의 행복'의 문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

아울러 청사 광장에 설치된 형



고창군 청사주변 트리경관조명.

형색색의 LED조명과, 조형물은 군민들에게 추억이 깃들 수 있는 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청사 광장에 설치된 LED 조명처럼 고창군이 한반도에서 가장 빛나는 고창이 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고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성했다"며 "희망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라며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 나눔의 빛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정 바다가 준 보물! 명품 '고창 지주식 김'

화학물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래식 방식으로 생산 박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랍스 습지로 지정된 청정 고창갯벌에서 생산되는 명품 '고창 지주식 김'이 2019년산 물김 채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 김은 심원면 만물리에 서 지주식 양식방법으로 생산되고 있다. '지주식 양식'이란 김 포자를 대나무에 꽂아 밀물에는 물에 잠기고 낙조에는 노출되어 햇빛에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 김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전체 김 생산량의 약 10%만을 차지하는 아주 특별한 양식방법이다.

김을 지속적으로 바닷물 속에서만 성장시키는 부류식 양식과는 달리 지주식 양식은 썰물시 김을 햇빛에 완벽히 노출시켜 자연적으로 김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김에 산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훌륭하다. 더욱이 고창 김이 생산되는 심원면 만물리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랍스 습지로 지정된 청정갯벌로 생산 환경까지 우수하여 고품질의 명품 김을 생산하는데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고창군의 김 양식이 종사하는 어가는 총 47어가로 지난해에는 연 700톤 이상의 물김을 생산하여 2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했다. 현재 채취되고 있는 지주식 김은 내년 4월까지 6~7번 정도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된 두벌김은 고창군수협 등으로 납품될 계획이다. 한편, 고창 지주식 김은 고창군 수협, 고창군 하나마트를 비롯한 지역농협과 인터넷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부안군은 세외수입(과태료, 이행강제금, 대부료, 사용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안군은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안내문과 독촉·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 재산조사를 실시해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자동차책입보험,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 세목은 자진납부기간에 납부를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일괄납부가 힘든 체납자들에게도 분할납부, 카드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가 제공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 재정에서 중요한 세입원 중 하나임으로 체납으로 인해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변호판결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의식을 갖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063-580-4818)으로 문의하면 관내 세외수입 체납내용 및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약취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약취 민원 적극해결 나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속되는 축산 약취 민원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무인약취 포집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약취는 발생특성상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하여 소멸하므로 그 동안 약취 민원이 제기되어도 약취포집과 원인물질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해 시는 올해 시비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어 민원이 지속되는 태인면과 칠보면에 소재한 둔사 2개소에 5천만 원을 투입해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무인약취 포집기는 약취 발생의 이동경로 예측에 중요한 기상측정부(풍향, 풍속, 온도, 습도)와 고감도 반도체 센서로 이루어진 약취측정부, 약

취 포집부 등으로 구성됐다.

포집기는 24시간 약취를 측정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약취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격으로 자동포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측정된 자료는 행정, 주민, 축산농가가 모두 볼 수 있어 축산 농가는 스스로 약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행정과 주민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는 무인약취 포집기를 약취감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경부터는 약취방지법 개정으로 무인약취 포집기에서 포집한 시료로 약취 검사 후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4대를 추가 설치하여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